

박형준 / 3월 / 도약 GS / 5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29059	20.5	13.5	17.5	13.5	65	1	2.17%	7	46
534806	19	11	19	13	62	2	4.35%	6	
534241	20.6	13.5	14.5	12	60.6	3	6.52%	7	
529237	19.5	12.1	16.7	12	60.3	4	8.70%	6	
534380	19.5	12.5	16.5	11.5	60	5	10.87%	7	
534175	20	12.5	15.7	11.7	59.9	6	13.04%	5	
534160	20.6	13.5	16	9	59.1	7	15.22%	6	
528964	19.4	13	14	12.5	58.9	8	17.39%	7	
536423	19.5	12	15.5	10.5	57.5	9	19.57%	6	
534391	19.5	11.4	15.5	11	57.4	10	21.74%	5	
534196	20.3	11.5	13	12	56.8	11	23.91%	6	
534165	19.5	12	13.5	11.2	56.2	12	26.09%	5	
534187	18.2	13	14	10.5	55.7	13	28.26%	5	
534346	19	11.5	15.5	9.5	55.5	14	30.43%	4	
534381	19.7	12.5	14	9	55.2	15	32.61%	6	
534365	16	13.5	15	10	54.5	16	34.78%	6	
534398	17.8	13	11.5	12	54.3	17	36.96%	7	
529402	19.5	12.5	13.5	8	53.5	18	39.13%	5	
534231	18.5	11.5	13	10.5	53.5	18	39.13%	6	
536429	17.5	12	12.5	11	53	20	43.48%	5	
534423	19.3	12	13	8.5	52.8	21	45.65%	6	
534161	19	11.5	13	9	52.5	22	47.83%	4	
534468	19	12	14	7.5	52.5	22	47.83%	4	
534166	20.7	13.5	11.7	5.5	51.4	24	52.17%	4	
529129	20.1	12.5	12.5	6	51.1	25	54.35%	5	
534347	17.5	11	12.5	10	51	26	56.52%	4	
529277	18	11.3	11.5	10	50.8	27	58.70%	5	
534205	18.3	12.5	15	5	50.8	27	58.70%	4	
534358	20.3	12.5	11.5	6	50.3	29	63.04%	5	
528987	17	7.5	14	11.5	50	30	65.22%	5	
534250	18.2	11.5	12	8	49.7	31	67.39%	5	
534348	17.5	12	14	6	49.5	32	69.57%	4	
534233	16	11	12.5	9.5	49	33	71.74%	4	
534162	15.5	11.5	13.5	8.5	49	33	71.74%	5	
534514	18.5	13	16	1.5	49	33	71.74%	6	
534425	16.5	10.5	13.5	8	48.5	36	78.26%	5	
534202	19	12.5	11	5.5	48	37	80.43%	6	
534343	18	11	10.5	8.5	48	37	80.43%	4	
534194	20	11.5	11	4	46.5	39	84.78%	4	
534188	18.5	11	9	7.5	46	40	86.96%	5	
534163	16.3	11.5	11	7	45.8	41	89.13%	5	
534355	16.5	12	7	7.5	43	42	91.30%	5	
534426	18	9	6.5	5.5	39	43	93.48%	5	
534247	16	11.5	6.5	4.5	38.5	44	95.65%	5	
534396	13.5	11.6	11.5	0	36.6	45	97.83%	4	
534728	17.5	12	0	0	29.5	46	100.00%	5	

박형준/2월/도약GS/5회/1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설문1,2는 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설문3에서 점수가 변별된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조치 문제로, 기본서에 있는 조치들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들 잘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 병기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조치별로 목차 잡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구매판매-소진이론은 많이 누락하셔서 기재하신 경우에 추가배점했습니다.</p> <p>(3) 설문 3</p> <p>특허권 하자 검토를 너무 두껍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부남자 판단에서 두껍게 판례 기재하고 사안포섭하는 것이 더 논점에 맞는 내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부남자 누락하신 경우나, 이 중 하나를 누락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4) 설문 4</p> <p>부인과 정정의 재항변을 목차 나누어서 강약조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정의 재항변을 두껍게 기재해서 진보성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줄처리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강약조절 더 유념하면서 답안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3. 소결</p> <p>설문3과 설문4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화된 답안지 형식을 만드려고 하기보다는, 배점과 묻는 바에 따라 유동적으로 답안지 목차를 잡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p>	

박형준/2월/도약GS/5회/2번	채점자
	이정은
<p>1. 전반적인 총평</p> <p>이용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이용관계 관련 규정은 기재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이용관계 성립여부 학설은 줄처리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실시방법에 대해서, 조치는 묶어서 줄글로 쓰기보다는 줄처리라도 목차를 나누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p> <p>(2) 설문 2</p> <p>선원권리자의 실시제한에 대해서 목차 외워두고 다음에는 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잘 써주셨습니다. 역시 조치는 다각적으로, 목차 나누어서 써주면 좋습니다.</p> <p>3. 소결</p> <p>중요논점에 해당해서 다들 잘 써주셨으나, 선결논점으로 적어줄 부분을 기본서에 표시해두거나 제목이라도 외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입니다 !</p>	

박형준/2월/도약GS/5회/3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행위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p> <p>문제에 제시된 행위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 사소한 행위의 경우 누락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방법발명에 대하여 권리 소진이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p> <p>판례를 두껍게 작성했는지, 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사용 전 구매 행위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p> <p>(2) 설문 2</p> <p>마찬가지로 교체행위만 검토하고 교체 전/후 사용행위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p> <p>교체 행위의 경우 설문상 불분명하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대부분 제작*공급행위와 검수*시연행위를 구분하여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p> <p>사안포섭 보다는 판례에 키워드를 포함하여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p> <p>3. 소결</p> <p>침해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 각 행위마다 평가를 달리해주셔야 합니다.</p> <p>행위별로 목차를 달리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할 경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p> <p>침해 요건 일반론에 대해 길게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이 경우 강약 조절이 된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p>	

박형준/2월/도약GS/5회/4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20점 내 소문이 총 5문제로 각 행위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다소 낮은 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반론보다 사안 해결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셔야 했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물건 발명의 권리 소진에 대해 물어보는 설문이었습니다. 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5에 작성해야 하는 “본다쉽교따” 판례를 설문 2에 작성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3) 설문 3</p> <p>무권리자로부터 구매하여 특허권이 소진되지는 않으나 가정적으로 사용하여 침해라고 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일반론에는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4) 설문 4</p> <p>교체 행위가 프린터의 생산에 해당하나 가정적 생산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p> <p>마찬가지로 일반론에는 점수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p> <p>(5) 설문 5</p> <p>“본다쉽교따” 판례를 설문(2)에 써버려서 설문(5)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p>	

“본다쉽교따” 판례를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판례에서 설시한 요건을 모두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답이 명확한 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놓친 판례 키워드와 사안 포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문제-1>

I. 섯문 (1)

4. 2

1. 사전적 가치

서면 경고, 침해금지가치불, ~~침해~~가압류, 증거보전, ~~징구~~징구, 권리범위확대심판 (소(252)) 청구할 수 있다.

2. 민사상 가치

(1) 침해금지청구 - 소(1262)

甲은 乙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침해예방청구, 폐기, 서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소(1282)

甲은 乙에 대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3) 기타

신용회복청구, 복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상 가치

(1) 침해죄 관련 - 소(2252)

甲은 乙을 상대로 침해죄 관련할 수 있다.

(2) 기타

몰수, 양벌규정 고려해볼 수 있다. (소(2312, 2302))

4. 기타 권리

실시권 계약. 특허권 양도. 허락. 권리. 중재 등 시도해볼 수 있다.

II. 질문 (2)

2. ∞

1. 중단

2은 $A+B+C$ 제2. 판매 행위 중단할 수 있다.

2. 허락. 특허권 양도

2은 甲에게 허락 또는 甲 특허권 양도를 통해 계속 실시할 수 있다.

3. 특허권 하자 관련

신행기술 기사 등을 통해 甲 특허권 하자를 찾아 관련 항변. 무효심판 청구. 특허권 포기 가능 할 수 있다.

4. 소진이론

甲으로부터 $A+B$ 를 구매하여 소진될 물건으로 $A+B+C$ 제2. 판매할 수 있다.

5. 기타

허락. 제2. 중재. 역공학. 회피심판 등 할 수 있다.



Ⅱ. 설문 (3)	
1. 특허권 하자 정도	
(1) 신규성 여부 - <u>특2921항</u>	
단일비교 원칙 (특141) 에 따라 <u>특허발명은 신규성</u>	
을 인정된다.	
(2) 진보성 여부 - <u>특2922항</u>	
선행기술 1,2와 특허발명 비교해볼 때, 진보성 인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무효심판 청구	
(1) 의의. 취지 - <u>특133조</u>	
공익상 하자있는 특허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2) 사안	
2은 <u>특허발명 진보성 위반 주장·입증하여 무효</u>	
심판 청구한 수 있다. 소송중지신청도 할 수 있다.	
3. 당연무효 항변 가박 - 소극	
(1) 취지	
특허발명은 무효심판 인용심급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	
한 개의로써 다른 개차이시 무효임을 제3자로 판단	
할 수 없다.	
(2) 사안	

	2은 2등에서 진보성 위반으로 특허를 당면 무효 주장할 수 없다.
4. 권리범위 부재 - 2국	
(1) 사례	
	신규성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진보성 위반에 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하여 권보성 위반이라고 권리범위 부재할 수 없다.
(2) 사안	
	2은 진보성 위반은 이유로 특허권 권리범위 부재할 수는 없다. 된다고 주장
5. 권리남용 - 2국	
(1) 종래 사례	
	진보성 위반인 경우 침해 소송 법원에서 진보성 위반 여부 심리·판단할 수 있다.
(2) 제1회 사례	
	무효 실질적 정의. 당사자 형평. 공익. 특허권 목적 등 고려할 때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대해 특허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고, 침해소송 법원은 그 자체로서 진보성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검토	

당사자 사이 협정. 특허권 입법 목적, 고려할 때 적합
취사지 타당하다.

(4) 사안

2은 甲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 수 있
고 침해소송 법원은 그 제제로서 진보성 심리·판단한
수 있다.

6. 자유기술행위

2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자신의 발명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수 있다. 이는 문헌침해인 경우에도 같다.

IV. 결론 (4)

5.5

1. 논쟁점

甲 특허발명의 진보성 조항에 따라 甲 대응 권리 사
려볼다.

2. 진보성 인정되는 경우

(1) 조합발명 진보성 판단방법 취지

각 구성이 공지된 사실만으로 진보성 복식되지 않고
각 구성 유기적으로 조합된 제제로서 구성의 골조상 인
정되는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선행기술 개화하기 취지



심해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었는지. 출원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등 제반사실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안

심해문헌에 1.2 각 공지만으로 진보성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심해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 등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

(1) 심해 재해결을 위한 취지에

특허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경쟁심판청구 등을 통해 심해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면 심해의 재해결을 할 수 있다.

(2) 사안

甲은 진보성 문제되지 않는 방법 A+B+D의 심해 재해결을 통해 A+B+D와 A+B+C의 균등침해를 주장해볼 수 있다.

<결>

20.5

<문-2>

6.5

I. 섯 (1)

1. 이용관계 여부-적극

(1) 문제점

法 138조 관련 法 48조 '이용'의 의미 문제된다.

(2) 해석

주요부포함성, 개량특성성, 그대로포함성, 실시불가피성, 침해
불가능성 등 있다.

(3) 취지

이용관계란 후특허발명이 선행특허발명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선행특허발명의 특징을 전부 포함하고 이
를 그대로 이용하되, 선행특허발명의 일체성이 후특허발
명에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검토

法 138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취지 타당하다.

(5) 사안

2의 특허발명에서 甲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
고 C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일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 발명 이용관계 해당한다.

2. Z 실시 가법-적극

(1) 실시방법-法 48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자 동의 없이 자신의 발명 실시할 수 없다.
(2) 사안	Z은 甲에게 허락 받은 등 사실 보이지 않아 A+B+C 실시할 수 없다.
3. Z 실시 방법	
(1) 허락	Z은 甲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허락실패 - 法 138조 1항	Z은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을 수 없 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실패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B+C 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충분한 기술적 진보가 가져 는 것이어야 한다. (法 138조 2항)
(3) 특허권 양수	Z은 甲 특허권을 양수하여 자신의 발명 실시할 수 있다.
(4) 무효실패 청구	甲 특허권 하자 있는 경우 무효실패 청구하여 인용심판 확정 후 실시할 수 있다.
(5) 기타	재심청구, 실질을, 항해-건조, 중재 등 시도해볼 수 있다.

II. 설문 (2)

1. 실시 가박 - **2.5**

(1) 실시제하

이용관계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하되거나 소극적 허용까지 제하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허권 침해다.

(2) 사안

甲이 2011년 허락 등 받은 사정 보이지 않으므로 甲은 A+B+C 실시할 수 있다.

2. 실시 방법

(1) 허락

甲은 2011년 허락받아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허락심판 - 2013823호.

甲이 2011년 통상심사에 허락한 경우 2이 실시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받은 수 없는 경우에는 甲은 통상심사제 허락심판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 양도

甲은 2 특허를 양도하여 A+B+C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무효심판 청구. 재심청구. 실질을. 하해. 강제. 중재 등 시도 해볼 수 있다.



II. 설문 (3)

1. 실시 가법 - 2국

(1) 침해 여부 - 2국

丙이 $A+B+C$ 실시하는 경우 甲 및 乙 특허권 침해다.

(2) 사안

丙은 甲, 乙에게 허락받은 사안 없으므로 $A+B+C$ 실시할 수 없다.

2. 실시 방법

(1) 허락

丙은 甲과 乙에게 허락받아 $A+B+C$ 실시할 수 있다.

(2) 허락실패 - 불가

丙은 통상실시권 허락실패 청구인 경우 없으므로 甲, 乙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락실패를 청구할 수 없다.

(3) 특허권 양도

丙은 甲, 乙 특허권을 모두 양도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무효심판 청구

丙은 甲, 乙 특허권 하자 있는 경우 무효심판 청구하며 인용심판 확정 시 실시할 수 있다.

(5) 기타

재심청구, 화해, 중재, 중재이중 등 시도해볼 수 있다.

〈끝〉

<문-3>

I. 설문 (1)

1. 실행의 독립 원칙

실행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행위별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구매행위 - 2주

구매는 法22조 3항 4목의 실행행위가 아니므로 침해 생립하지 않는다.

3. 사용행위 - 2주

(1) 인권을 의의. 취지

특정당계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허용될 법리다.

(2) 방법반영 인권을 취지

(1) 관련 취지

특허행위가 방법반영인 경우, 특허권자 등 계당계리자로부터 방법반영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은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 ~~그 물건을 통해 방법~~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인권되고, 그 물건을 통해 방법반영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2) 방법발명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

사후통념상 방법발명 실시 의미 타당도가 있는지, 방법 발명의 특유한 해결방법이 가능한 기술사상 핵심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물건으로 수행하는 공정이 자체 공정이거나 차지하는 비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논거

①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양식, ② 특허권자의 이윤확보 기회 보장, ③ 방법발명에만 신의이름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한다.

(3) 사안

1) 방법발명 실질적 구현 물건 여부

이 사건 용접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 실시예에 사용되는 장비인점, 특허발명인 용접방법에 대한 기술사상 핵심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적 고려하면 용접기는 방법발명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에 해당한다.

2) 신의 여부

甲으로부터 동상신식호 하각받은 A로부터 구매한 바 특허권 목적 달성하여 특허권 소진되었다.

3) 소견

용접기 소진 사용은 특허권 침해 아니다.

4.5

II. 설문 (2)

1. 통상적

통상적 구성 중 프로브 교체 행위가 특허발명 제품
생성으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2. 간접침해 의미. 취지 소개

특허권자 실행을 위한, 직접침해 뿐만 아니라
직접침해 개연성 높은 행위에 대해 간접침해 생략한다.

3. 권리·재생산 법리 취지

(1) 판단방법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행
위 자체로 해당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생성한 것으로서 특허권 침해이다.

(2) 고려 사항

당해 제품의 구성요소, 성질, 이용형태, 특허법 입법취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요약

(1) 권리 여부



이러한 통제는 여러가지 구성들이 포함될 물건으로서
 프로브는 그 구성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프로브는 수식
 2 그 통제기 사용 중에 교체가 필요한 점, 프로브는
 통제기의 가장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장이 지
 령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프로브 교
 체 행위는 통제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의 수리행위라고 판단된다.

(2) 소결

따라서 2의 프로브 교체는 통제기 구매로 특허권
 소진 이후 수리행위 이므로 역시 특허권 소진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특정한 침해 아
 니다.

5. 결론

2 행위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아니다.

II. 서문 (3)

1. 제작·공급행위

(1) 직접침해 여부 - 2주

통제기의 제작·공급행위는 방법발명의 방법 사용, 또는

고의의 방법 사용 침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접 침해는 아니다.

(2) 간접침해 - 법 제 121조 2호

방법발명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생산·양도 등 행위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본다.

(3) 직접침해 여부

독립성, 종속성, 독립하고, 실시행위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구체적인 사안별 평가가 다르다.

(4) 업으로서 실시 여부

甲 회사는 업으로서 통장기 제작하고 B회사에게 공급한바 업으로서 실시는 인정된다.

(5) 제3자 제작·공급 관련 실시

간접침해는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허권 침해로 보는 규정으로서 통상 실시자가 제3자에게 제품 제작 의뢰 후 공급받은 경우 이른바 간접침해로 보면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고, 실시권이 부당하게 제약은 가하는 결과가 되는 점, 특허권자는 실시계약 체결 시 제3자 의뢰를 예상하여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 새로운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 제작·공급 행위는 간접침해 해당하지 않는다.

(6) 사후

정당 실시자 B로부터 용접기 제작 의뢰받아 용접기는
제작하고 B에게 공급했으므로 丙의 제작, 공급행위
는 甲 특허권 침해 아니다.

2. 경수·시연 행위

(1) 과당 배제

제작, 공급행위를 침해로 보지 않는 결과 이에 필
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수·시연행위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후

丙의 제작, 공급 행위가 앞서 살펴본 바 침해가
아니므로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수·시연 행위도
甲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3. 결론

丙의 행위들은 이 사건 특허권 침해 아니다.

(끝)

<문-4>

I. 설문 (1)

1. 소진의를 의미하지

정당한 권리로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 소진되어 특허권 행사 금지 않는다. 물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 활성을 위해 특허제로서 행 위 를 제한 할 수 없 다.

2. 무제한 소진 의 의 미 를 해 설 하 는

특허권자가 물건권자인 경우, 특허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받은 경우 특허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고, 이후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는 특허권 행사가 금지 않는다.

3. 사례

(1) 소진 여부 - 판

甲은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프린터 X를 구매했으므로 甲의 프린터 X 에는 특허권 소진 되었 다.

(2) 소진

따라서 甲의 프린터 X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행사 금지 않으므로 침해 아 니 다.

II. 설문 (2)

1. 신규·재생산 방법 사례

(1) 다른 방법

특허권보유자가 물건보유자인 경우 신상품 등을 교체할 때 그 물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규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 침해가 아니고, 동일성을 해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 침해 성립한다.

(2) 고려 사항

당해 제품의 개조방식, 성질, 이용형태, 특허법 입법취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안

(1) 재생산 여부

프린터 X는 볼체 A와 카트리지 B의 결합에 그 특징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카트리지는 교체가 필요한 것이긴 하나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행위는 프린터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兩의 카트리지 교체행위는 실질적으로 프린터 X 생산행위에 해당한다.

(2) 손해

兩의 프린터 구매로 인해 여전히 특허권 소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다.

III. 설문 (3)

1.5

1. 소진 여부 - 소극

J은 정당한 권리자인가 아닌 2로부터 프린터 X 구매
해바 특허권 소진되지 않는다.

2. 업으로 실시 여부 - 소극

J은 프린터 X를 가정용으로 사용하여 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업으로 실시가 아니므로 J 사용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IV. 설문 (4)

1.5

1. 생산 여부 - 적극

J의 카트리지 교체행위는 앞서 살해될 바와 같이
상징적 프린터 X의 생산행위이다.

2. 업으로 실시 여부 - 소극

J은 프린터 X를 가정용으로 생산하여 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업으로 실시가 아니므로 J 교체행위는 침해가 아
니다.

V. 설명 (5)

1. 관습침해 의미 취지 - 법 121조

특허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침해 제 1항에 해당되는 관습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습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 특허발명의 경우 - 법 121조 1항

특허발명 사상에 있어 사용되는 물건은 생산, 양도 등 하는 행위에 특허권 침해로 본다.

3. 소모품 관련 배제

소모품의 경우에도, ① 그 구성이 특허발명의 발견된 구성에 해당하고, ② 특허발명 사상에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고, ③ 양질의 거래에서 쉽게 구할 수 없으며, ④ 사용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 ⑤ 특허권자가 따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볼 수 있다.

4. 배제

소모품 공용성 문제 등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5. 검토

관습침해 취지, 특허권자의 손해, ~~특~~ 소모품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 소모품에 해당할 수 있는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 일을 타당하다.

6. 사안

(1) 제품 여부

카트리지 B는 프린터의 부품 A와의 결합에 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질적 구성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가 없으며, 상품으로서 사용에 따라 수익 관계가 필연적 징, 특허권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징, 상업 상 불명확하나 일반 거래관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므로 카트리지 B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특허법상 프린터 X의 제품에 해당한다.

(2) 신체

2의 카트리지 B 제조·판매는 제품 제조·판매로서 간접침해 해당한다.

<이 하여 행>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1] (특허법은 아하, 그쪽 아하 한다.)

I. 실문 (1)

1. 사권적 조치

4. 2

甲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乙에게 시변 명고 및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사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민사적 조치

(1) 침해금지 청구 조항 126조

甲은 乙에게 침해를 그만두는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등 1항), 이에 침해를 저지 등을 함께 청구 가능하다 (등 2항).

(2) 손해배상 청구 조항 128조

甲은 乙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적 조치 - 침해죄 조항 225조

乙의 침해에 대해 국가는 비권력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1제), 甲은 乙에게 침해죄로 고소 가능하다.

4. 기타 조치



① 甲은 乙에게 객관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하기
나(그리고 135조), ②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합의,
③ 특허권 양도 및 ④ 허락·금지 등은 고려해볼
수 있다.

II. 실문(2) 25

1. 실시 금지

乙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므로 乙은 우선적으로 실시
를 중단할 수 있다.

2. 특허권 하자 검토

① 실문 (3)에서 논란 바뀐 같이 甲 특허권의 하자
를 조사하여, ② 침해소송 내에서 권리남용의 행위를
하거나, ③ 무효심판 청구 등은 할 수 있다.

3. 실시권 설정 계약

乙은 甲의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여 실시를
합법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

4. 등록 및 허락심판 청구

① 甲의 A+B와 乙의 A+B+C는 동일 발명인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② Z은 자신의 권리 범위를
특히 확인·등록하여 ③ Z로 138로써 통상 실시권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가라 코치

① Z은 甲에 대해 소극적 권리방위특허인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극 135로 2항), ② 자신의 권리로 역공격·
허리 심제 등을 시도, ③ 허위·불제 등을 여러
해볼 수 있다.

III. 심문 (3)

1. 침해금지청구 소극 126로

특허권과 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
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2. 특허권 행사 검토

(1) 손해액 부인 여부 (소극)

1) 손해액 소극 29로 1항

특허권 공개의 대가인바, 공개권과 동일하지 않음
것을 말한다.

2) 사안

상행각을 전원의 권리에 따라(제1제), 甲의 A+B를
상행발명 1(A)와 상행발명 2(B)를 결합해 신
구성 필란을 불가한바, 신규성은 부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권보심 부당 여부

1) 권보심 조 29조 2항

기술·산업발명을 위하여, 공개로부터 쉽게 알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4안

상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A+B가 공출된 수로
있노바, 그 권리 인정하여 甲 특허권의 권보심
부당함을 권보로 아하 권리 검토한다.

3. 침해소송 에 권리

(1) 양면무효 인정

1) 제1제

특허권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심판 확정 권하
지 그 권리는 어느 유효한 것일시 다른 권
리에서 양면무효를 권보로 필란 불가하다.

2) 사안

甲 특허권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양면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부당 관련

1) 사례

① 권리범위를 광할 때 특권 내 허가권을 함
작해야 하며, ② 산유권 부당시 권리범위가 부
당하다는 입장이나, ③ 전보성 부당시까지 권리범
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다.

2) 사안

그는 甲 특허권의 전보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권리범위의 항변 관련

1) 총리 사례

전보성이 부당라는 경우 권리범위를 부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변소송 내에서 전보성을 상시
진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된다.

2) 관할 사례

① 신기술 광의·특허법 입법 목적·경제적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② 무효심판 심판 관례로 전보
성이 부당되어 무효로 된 특허가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한 침해해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로 허용될 수 없고,
③ 항변소송 심판 법원으로서도 권리범위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양부 판단의 관례로서 전보성을

심니.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3) 검토

특허권에 진보성 하가 있음에도 특정-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하여할 경우 권리에 상해 야기되는바, 관습규범이 타당하다.

4) 사안

그는 甲 특허권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된 권리가 명백함을 주장하여 권리행사의 항변 가능하다.

(4) 자유가설의 항변

만일 2의 $A+B+C$ 가 자유가설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는 자유가설의 항변 가능하다.

4. 침해소송의 권리

(1) 무효심판 제133조

공익상, 하가 있는 특허를 소멸시키는 심판 제로이다.

(2) 사안

그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甲 특허권을 진보성 하가 큰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때 침해소송에 대해선 소용 없이 소멸 가능하다(제164조).

IV 선택 (4)

5.5

1. 논쟁쟁점

甲이 A+B의 진보성이 부진리라고 판단한 경우와
그와 반대로 옳은 경우로 나누어 보자.

2. 진보성이 부진리라고 판단한 경우

(1) 경쟁의 재발견 사례

1) 종래 하급심 사례

경쟁을 통해 특허된 하자가 과잉이라는 경우에는
권리범용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것으로 보는 양성이 있다.

2) 하급심 판례 사례

권리범용의 항변이 무슨 정황 특허권자는 경쟁상관
행위 등을 통해 경쟁을 인정받아 하자가 과잉이
나 과잉된 수로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재발견
가능함을 양론으로 판단하였다.

(2) 사안

① 甲은 A+B+D를 발명의 실용에 기재한 바,

② 경쟁상관 행자 등을 통해 A+B를 A+B+D로
강박 보강하여 진보성 하자를 극복할 수 있음
주장. 입증하여 경쟁의 재발견을 시도할 수 있다.

3. 진보성이 부진리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1) 전방반영 전보성 판단법니 쉼시제

1) 판단의 대상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
전보성 판단의 대상이다.

2) 산출물인 결합요인

그 결합이 이룰 수 있다는 압력·중력 등 산출
물반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제반 사실로 보아
충당 가능하나, 그와 같은 결합이 쉽게 이룰 수 있
어야 한다.

(2) A안

① 甲은 A와 B에 A+B에 이룰 수 있다는 압력·중
등이 없으며, ② A+B 전체가 전방반영 전보성
판단 대상임을 중시, ③ A+B가 전보성이 부정되기
않도록 하는 수능 가능하다. [문]

20.6

[문제-2]

I. 실문 (1)

6.5

1. 이용관계 여부 (각각)

(1) 문제점

2018년의 '이용'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2) 핵심

① 주부로부터, ② 개량선, ③ 그대로, ④ 신의 불의에
등이 존재한다.

(3) 취지

이용인제인 후 발명이 신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서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여, 신 발명의 성능을
진부 향상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후 발명에
신 발명의 발명으로서 인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 발명이 후 발명 때
에서 기술사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므로,
취지가 타당하다.

(5) 사안

2 발명은 1 발명 A+B를 그대로 향상한
A+B+C로 인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
이용인제에 해당한다.

2. 2의 실시 가부

(1) 후진권자의 실시 가부

이용 인제에 있는 경우 신권권자의 권리 없이
후원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사안

원칙적으로 Z은 $A+B+C$ 를 각유리인 식이 될 수 없으나, 그 식의 방법에 대해 이바지 받는다.

3. 2의 식의 방법

(1) 식의 하수 방법

Z은 甲에게 식의 하수로 주어 $A+B+C$ 를 식할 수 있다.

(2) 통상식인 하수상한 항목 제138조

①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를 고지한 경우, Z은 통상식인 하수상한 항목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식의 하수로 식할 수 있다. ② 이때 자신의 식의 하수가 $A+B$ 에 비해 식한 식의 하수를 가리키는 주장은 인정받지 않는다(제138조 제2항).

(3) 특허권 양도

Z은 甲의 특허권 양도에 식할 수 있다.

(4) $A+B$ 구매 및 식

Z은 甲으로부터 $A+B$ 를 구매하여 특허권이 식한 $A+B$ 를 식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기타 권리

甲에 대한 무효상한 항목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식할 수 있다.

II. 식문 (2)

9.5

1. 甲의 선택 가부

① 선행권이나 역시 허락 없이 후권권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바, ② 아바 선택 방법 검토한다.

2. 甲의 선택 방법

(1) 선택 허락 사항

甲은 乙에게 $A+B+C$ 에 대한 선택 허락 권한을 가진다.

(2) 크로스 라이선스 항목 제138조 3항

① 甲이 乙에게 제138조에 따른 통상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경우, ② 甲은 乙에게 통상라이선스 허락 권한을 통해 크로스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

(3) 특허권 양복

甲은 乙의 특허권을 양복할 수 있다.

(4) 기타 권리

$A+B+C$ 를 구매하여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III. 식문 (3)

9.5

1. 丙의 선택 가부

① 제3자 丙이 $A+B+C$ 를 선택자에게 권할 경우,

② 甲과 乙의 특허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되는 바,

③ 그 실시 방법에 대해 이하 검토한다.

2. 丙의 실시 방법

(1) 실시 가능 여부

丙은 甲. 乙 모두에게 실시 가능 여부. 실시할 수 있는 방법 $A+B+C$ 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시 가능 불가

丙은 제34조 甲. 乙에게 제38조의 통상적인 실시 가능 여부를 할 수 있다.

(3) 특허 양수

丙은 甲 및 乙의 특허권을 양수하여 $A+B+C$ 를 실시할 수 있다.

(4) 무효심판 청구

丙은 甲. 乙의 특허권 허가를 받고, 무효심판 청구하여 인용되면 특허 $A+B+C$ 를 실시 가능하다. [문]

甲. 乙

[문제-3]

I. 실문 (1)

1. 논리정리

① 용량을 구매할 행위는 실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아 침해가 생립하지 않고, ② 용량을 사용하여
 방법반영을 실시한 것이 특정한 침해안을 방법반영
 소인이거나 인정되어 침투한다.

2. 소인 이론 의미·특성·근거

적법하게 양로된 특허문건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소인되어 침투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지식재산
 과 권리 범주의 개입은 있으나 문건의 사법적
 위를 및 개입 안건을 위해 체계로 확립된 법이다.

3. 방법반영의 소인 이론 체계

1) 소인 이론 적용 법칙

방법반영의 특허권과 증이 방법반영이 신적으로 구
 현된 문건은 적법하게 양로한 경우, 특허권은 목
 적을 다하여 소인되어, 이후 권유·양유인 등이 그
 문건을 사용하여 방법반영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특정한 침투가 되지 않는다.

2) 방법반영을 신적으로 구현한 문건

① 그 문건에 방법반영의 실시 전에 다른 용도가
 있으나, ② 그 문건이 방법반영의 특정한 개입사항이
 기술한 것을 개입사항이 행위를 전부 포함하는지,
 ③ 그 문건은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가 방법반영

사회공익상 필요·충요

전체 공평에서 차이는 비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논거

① 물건에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권, ② 대가확보
가능의 충족, ③ 방법반영은 소권이론에서 제외할 합
리적 이유의 부재, ④ 소권을 하여 방지 등은 논거된다.

4. 사안

① 이 사건 통립기는 이 사건 특허반영의 신시에만 사용
되는 양태로 다른 용도가 없다. ② 신물상 부분
명 하나, 이 사건 특허반영의 기술상의 행위로 권리
를 포함하여 신시인 신상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통립기'는 '이 사건 특허반영
을 신상계약으로 구현한 물건으로서, ④ 객관적 신시인
A회사로부터 이를 구매. 사용한 행위에만 방법반영 특허
권이 소진되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신물의 해적

이 사건 특허반영 특허권의 소권으로, 것은 이 사건 특허
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II. 실문 (2)

35

1. 논점읽기

프로브 부호에 행위가 특정한 권리 용량 사용의 인
한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묻는 것이다.
간접

2. 권리 제정된 법의 체계

(1) 신식 제정된 법의 가

부호의 고쳐서 인하여 기존 제정된 법의 용량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용의 인본인 수의 행위로 봐 침해 성
립 않는다. 부호 고쳐가 기존 제정된 법의 용량을 배한
경우에 이르면 신식으로 생긴 행위로 봐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용량 제정된 법

제정의 객관적 상권. 이용형태. 특허법 규정취지를 고려
하여 판단한다.

3. 사안

(1) 직접침해 여부 (25)

- ① 이 사건 용량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용량으로,
 - ② 실용 이를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하더라도,
 - ③ 조 2로 3호 내의 상권의 범위상 생산 행위에 해당
않는다. ④ 직접침해 상권하지 않는다.

(2) 간접침해 여부 (5점)

1) 신원성 세팅은 여부 (5점)

신원성 불보영하. 이 사건 용접기는 드로브 내에 많은 부품을 이루어져 있을 것이나 필연리며, 드로브는 사실 근체했는다고 함으로 받아 이는 드로브 수치가 필연한 내용으로 파악되는 바, 그의 드로브 근체 방식은 제를 사용 인함인 수기 행위로 파악된다.

2) 소견

따라서 신원 (1)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그의 구체적인 용접기가 특허된 신원 이상, 그의 드로브는 근체해 사용된 행위는 간접침해는 물론 직접침해로 인정 받는다.

4. 신원의 해명

그의 행위는 이 사건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아니다.

III. 신원 (3)

5.5

1. 신사행위 종류의 원형 및 논점

- ① 침해는 신사행위별로 판단되어야 한 것임바, ② 그의 이 사건 용접기 제작·판매에 대해서는 간접침해 여부, ③ 그의 사인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2. 氏의 용접기 제작·판매 행위 침해 검토

(1) 간접침해 검토(2)로

직접침해 개연성이 높은 氏 氏의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정에 이바지한다.

(2) 방법반영의 경우 검토(2)로 2로

방법반영 침해만 사용하는 물건은 氏 (A용 제A) 하는 행위는 간접침해로 본다.

(3) 침해권자로부터 권리를 제작·판매 氏에게

1) 간접침해의 한계

간접침해는 이따가거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침해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이다.

2) 제3자가 침해권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침해권자가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특허법상 침해하는 경우, 그 제3자의 권리를 제작·양도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로 본다면 ① 침해권에 부당한 계약이 가해되고, ② 특허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특허권자로서는 침해권 침해로 인해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특허법상 침해한 것 예상하여 특허권 거래에 상응하는 이익을 획득 가능하나, 특허권자의 독립적 이익이 세로 침해된다고 볼 수로 없다 한다.

3) ~~관련~~

따라서 신사권으로부터 의의 받아 권용품을 생산.양도 하는 행위 등을 간접행위로 볼 수 있다.

(4) 사안

① B와 A는 甲과 계약한 정당한 신사권자로서, ② 丙은 이러한 B로부터 용량이 제수를 의의받아 이를 생산.양도한 바, ③ 비록 丙의 행위가 권용품을 함양하여 신사'하는 행위이긴 하되, ④ ~~간접행위로 볼 수 없다.~~

3. 丙의 감수·사면 행위 관련 검토

(1) ~~위례~~

권용품의 생산.양도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이상 그 과정에서 원특성으로 수반되는 감수·사면 행위를 침해로 볼 수는 없다 한다.

(2) 사안

① 丙의 용기 감수·사면은 이식된 특허발명 신사에는 해당하나, ② 이는 B에게 제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원특성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③ 침해에 해당 않는다.

4. ~~생략~~의 해설

丙은 이식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



[문제-4]

I. 선택 (1)

2.5

1. 특이한 위·취·취·취

특별하게 특이한 등로부터 양도된 특허권 증명은 특허권이 소멸하는 이론으로, 지식재산권 등의 명목 규정은 없다. 물건의 가혹한 유출 개시 안으로 개시 후이므로 특허권이 소멸한다.

2. 물건반영 특이한 위·취

특이한 등로부터 특허반영을 구한 물건이 특별하게 양도된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목적을 다 하여 소멸하는 바. 이후 양도인·관청 등 그 물건을 사용·양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소멸이 되지 않는다.

3. 사안

특이한 특허인인 甲으로부터 X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는, 갑으로 신생법인 하라고 그 X에 대한 甲 특허권 소멸이 소멸이 되지 않는다.

4. 선택의 제한

丙의 X 사용은 특권이 아니다.

II. 식문 (나)

3.5

1. 독립권

카트나기 신체 행위가 제2종 사물의 인물이 신인이
 권리가 침해가 아닌지, 신인 생산행위로서 침해인지
 문제된다.

2. 신규. 재생산 권리 부여제

(1) 재생산 여부 관련 문제

부품 신체로 중성이 유무라는 경우 사물 인물이 신규
 또는 중성 성격 중 하나, 부품 신체로 제2종 중성이
 해당 권리행위 신인 생산행위로서 침해에 해당한다.

(2) 중성 관련 방법

제2종 신인 생산. 이용행위, 특허법 제14조 제2항
 제 1항 관련한다.

3. 사안

① X는 본체 A와 카트나기 B의 '본체에 그 부품' 권리
 B는 X의 신인 생산 권리 파생되는 바, ② B에 신체로 중
 인성이 해당 권리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③ A는 B를 권
 리 받은 권리로부터 권리를 파생하여, ④ A가 행위는 무
 관으로 X는 신인 생산행위에 해당한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4. 실문의 해설

甲의 B 고지 행위는 X의 실용적 생산 행위로서 직접
침해에 해당한다.

III. 실문 (3)

1. 실시 여부 (각각)

J이 관련 없는 Z에게 X를 구매해 사용한 행위를 Z로
3호 가목의 물건반영의 심사행위에 해당한다.

2. 침해 여부 (각각)

① 다만 침해 성립은 구체서는 '당연치' 실시를 인정하(문.942).

② J은 ~~가목~~ 타사에 침해 성립 않는다.

IV 실문 (4)

1. 실용적 생산 여부 (각각)

실문 (2)에서 성립할 아전 같이, B의 고지 행위는 X를
실용적 생산한 행위로서 물건반영의 심사에 해당한다.

2. 침해 여부 (각각)

다만 가목 타사에 침해 성립 않는다.

V. 식문 (5)

3.5

1. 실시행위 종류의 인정

실시행위별로 침해 여부는 검토한다.

2. 판3의 개조 행위

(1) 간접침해 조(2)조

특정한 본질적 기능을 가지. 직접침해 인정제의 인정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물건반영의 경우 조(2)조 1호

물건반영의 독자적인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실시(사용 제외)하는 행위는 인정한다.

(3) 조(3)조의 경우 제1항

조(3)조로 반영이 본질적 구성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가 없으며, 쉽게 분리할 수 없고, 물건 구성에 인체가 예상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용이 따로 있고. 인정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행위 인정한다.

(4) A안

① B는 X의 구성에 있어 특정한 기능을 가진 물건으로 본질적 구성에 해당하며, ② 다른 용도가 없고, ③ 수시로 인체가 필요할 경우, ④ A가 별도로 제조.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보아, ⑤ B는 X의 인정행위 인정하는 바, ⑥ 이를 판3에서 제조한 2 행위로 간접침해 인정한다.

3. 3의 편제항목

아래에서 X의 권유를 3을 편제하는 항목은 간접관계에
해당한다 한 것이다.

4. 4의 해설

따라서 2이 3을 4로 편제하는 항목은 X의 간접관계에
 해당한다.

<이해해결>